



#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 개발: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 중심으로

김 정<sup>1</sup> · 김선희<sup>2</sup>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간호대학<sup>1</sup>,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sup>2</sup>

## Developing Parenting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in South Korea: Focused on Vietnamese and Filipino Marriage Immigrant Women

Kim, Jung<sup>1</sup> · Kim, Sun-Hee<sup>2</sup>

<sup>1</sup>School of Nursing, University of Northcarolina at Chapel Hill  
<sup>2</sup>College of Nursing, Daegu Catholic University, Daeg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cale to evaluate parenting stress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from Vietnam and the Philippines. **Methods:** The concept of parenting stress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was analysed with a hybrid model. Data were collected from 273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from Vietnam and the Philippines who were raising their children aged 1 to 6 years. These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exploratory factor analysis, multitrait/multi-item matrix assessmen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and Cronbach's alpha internal consistency measurement. **Results:** The final instrument consisted of 28 items. The following six factors were extracted b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sufficiency of parenting support system', 'role burden of mothers', 'maladjustment of children', 'confusion of parenting methods due to cultural differences', 'unskilled Korean communication', and 'ordinary difficulties'. Construct validity (factor analysis, convergent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and criterion-related validity were confirmed. Cronbach's  $\alpha$  value of total items was .92(95% CI .91-.94). Cronbach's  $\alpha$  of values for these factors ranged from .76 to .85. **Conclusion:** The parenting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is a valid and reliable tool.

**Key Words:** Immigrants, Parenting, Psychological stress, Women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 여성의 고학력과 사회진출 증가로 인한 혼인 불균형으로 우리나라의 여성결혼이민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1]. 2016년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는 150,066명이며, 이 중 여성결혼이민자가 126,856명으로 약 8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주 전 국적은

**주요어:** 이민, 양육, 스트레스, 여성

**Corresponding author:** Kim, Sun-Hee

College of Nursing, Daegu Catholic University, 33 Duryugongwon-ro, 17-gil, Nam-gu, Daegu 42472., Korea.  
Tel: +82-53-650-4831, Fax: +82-53-650-4392, E-mail: sunhee421@cu.ac.kr

- 이 논문은 제1저자 김정희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 This article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doctoral dissertation from Daegu Catholic University.

Received: Nov 1, 2017 / Revised: Feb 28, 2018 / Accepted: Mar 6, 2018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베트남 31.1%, 중국 24.2%, 한국계 중국인 12.3%, 일본 9.2%, 필리핀 8.4% 순으로 나타났다[2].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결혼 이민자 자신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한 한국사회의 개인과 사회, 국가적 다문화 인식 및 실태파악, 문제점과 지원 대책 또한 필요한 실정이다.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에 정착하여 적응해야 하는 시기에 출산 및 자녀양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문화적응과 양육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3]. 결혼을 목적으로 이주해 온 여성결혼이민자는 문화 차이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자신의 모국 문화와 전통을 기반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이주할 경우 모국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가 서로 부딪히게 되어 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4].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양육지원체계 부족, 경제적 어려움, 부담감 등과 같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5].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언어발달, 대인관계의 형성, 정체성 정립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이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는 자녀의 발달이 지연될까봐 불안감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경험한다[6].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는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자녀가 차별받을 것에 대해 걱정하는 등 자녀양육에 부담을 갖고 있다[5]. 이와 같이 한국이라는 문화적 환경 내에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는 기존의 모국의 문화적 환경 내에서 비(非)다문화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는 속성에서 양이나 질적 차원에서 다른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와 부정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녀의 문제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7]. 만 1세에서 6세까지의 아동기는 운동, 인지, 언어능력, 독립성, 사회성, 자율성 등이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자녀가 최적의 발달을 이루는데에 부모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8]. 그러므로 이 시기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한편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는 전체 여성결혼이민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2], 중국, 일본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와 비교하여 한국에서의 문화적응과 한국어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갖고 있다[9].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결혼

이민자는 중국과 일본 여성결혼이민자보다 한국 적응을 위한 한국 문화와 한국어 교육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다[10]. 미국, 일본, 서구 선진 유럽 국가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는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한국계 중국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비교적 익숙하여, 이들의 양육 스트레스는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선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의 속성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을 시도하고, 향후 이를 기반으로 다른 국적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 평가를 위한 측정도구 타당화 연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주로 PSI [11]를 기반으로 수정,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양육 스트레스는 기존의 도구와는 달리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문화차이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 한국에서의 양육지원체계의 부족, 한국어 의사소통의 문제, 자녀의 언어발달지연과 학습문제 등 이들이 겪고 있는 양육 스트레스의 주요한 측면들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가 부재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를 타당성 있게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만 1세부터 6세까지의 자녀를 둔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평가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 개념을 분석한다.
-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개발한다.
- 개발된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 개념분석 후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

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 2. 도구개발 과정

본 연구는 3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는 개념분석 단계로 혼종모형[12]에 따라 이론분석 단계, 현장분석 단계, 최종분석 단계를 통해 초기 예비문항을 작성하였다. 2단계는 문항개발 단계로 초기 예비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고 척도를 결정하여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3단계는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단계로 구성타당도와 준거타당도, 신뢰도를 검증하여 최종문항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개념분석 단계

#### (1) 이론분석

본 연구는 양육 스트레스를 다루고 있는 문헌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고찰하였다. 사진,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단행본 등을 포함하였다. 국내의 문헌의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KISS) 및 DBpia 등의 학술지, 학위논문, 단행본 등을 확인하였으며, 검색어는 ‘양육 스트레스’,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민자’ 등이었다. 국외 문헌의 경우 CINAHL, Pubmed 등을 통해 영어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을 선택하여 논문을 분석하였다. ‘parenting stress’, ‘multicultural family’, ‘immigrants’, ‘experience of child rearing’ 등으로 검색하였다. 그리고 국내·외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측정도구를 확인하였다. 문헌고찰 시 ‘양육 스트레스의 정의는 무엇인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의 속성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질문하면서 속성을 확인하였다.

#### (2) 현장분석

대상자는 D시와 K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1세부터 6세까지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 7명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여성결혼이민자를 선정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자료가 포화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표본을 추출하였다. 자료수집은 일대일 면담을 통해,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실시되었다. 면담 참여자의 모국은 베트남 4명, 필리핀 3명이었고, 연령은 22~36세, 직업은 주부가 5명, 정근직(영어 강사) 1명, 비정근직 근무자 1명이었다.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3~11년이었고, 자녀의 나이는 만 1세, 3세, 4

세, 5세, 6세로 분포하였다. 면담 2~3일 전 면담 참여자에게 전화하여 대상자가 원하는 면담 시간과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참여자 면담 시 주요 질문은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은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떤 걱정들을 하십니까?’, ‘자녀양육에서 어머니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양육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기분이 됩니까?’ 등이었다. 면담 장소는 참여자의 집이나 커피숍에서 실시하였으며, 면담 시간은 회당 1~2시간 소요되었고, 면담 횟수는 대상자 한명 당 1~2회였다. 면담 내용은 모두 녹음한 후 그대로 필사하였다. 면담 중에 대상자의 표정, 분위기 등 비언어적 표현은 메모장에 기록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 (3) 최종분석

이론분석 단계에서 도출된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 개념의 속성과 현장분석 단계에서 도출된 속성들의 일치되는 속성과 현장분석단계에서 새롭게 도출된 속성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 2) 예비문항구성 단계

#### (1) 예비문항 및 척도 개발

개념분석을 통해 나타난 속성과 하위범주를 바탕으로 문헌 고찰과 면담의 내용을 참고하여, 초기 예비문항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연구자가 조사하고자 하는 현상과 연구의 목적에 따라 Likert 척도의 반응범주를 결정하는데[13], 여성결혼이민자가 반응하기에 5점 척도가 용이하다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Likert 5점 척도로 결정하였다. 척도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이었다.

#### (2) 예비문항의 내용타당도 검증

초기 예비문항의 내용타당도 검정을 위한 전문가는 다문화 연구와 양육 스트레스 연구 경력이 있는 간호학과 교수 4인, D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연구원 1인, K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 1인, 생활지도사 1인, 그리고 만 6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한국에 거주한지 10년 이상 된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 1인, 총 8명으로 구성하였다. 2016년 2월 3일 1차 내용타당도 검정을 위한 전문가 토의를 2시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각 문항의 내용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의 속성과의 관련성과 문항의 적절성을 평가하였으며, 각 문항의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for Items, I-CVI), 척

도수준 내용타당도 평균지수(Scale-level Content Validity Index, averaging, S-CVI/Ave)를 산출하였다. 2차 예비문항 내용타당도 검정을 위한 전문가 집단은 1차와 동일한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2016년 2월 5일부터 11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실시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한 I-CVI와 S-CVI/Ave를 산출한 후 문항을 선정하였다.

### (3) 사용자타당도 검정

측정도구의 언어구사와 배열순서, 형식, 내용 등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예비도구의 사용자타당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항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대상자가 문항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13]. 사용자타당도 검정은 본 조사의 연구대상자와 같은 대상자에게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G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받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 18명과 G시의 다문화가정 자조모임에 참석하는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 12명으로 총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도구 문항의 내용에 대한 반응은 직접 면담과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고, 문항의 이해도는 4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응답 소요시간을 확인하였다. 조사 동안 본 연구자가 설문지를 마친 대상자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문항이나 어려운 문항이 있었는지 직접 질문하여 문항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도 확인하였다.

## 3)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 단계

### (1) 연구대상

만 1세부터 6세까지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요인분석에서 적합한 표본크기에 대하여 표본수가 200개 이상이거나 사례수와 측정변수의 비율이 5 대 1 이상이면 안정적이라고 하였다[14]. 본 연구에서의 문항 수는 35개이며 표본 수는 273명으로 합당한 수준이다. 대상자는 총 315명으로 내용이 불충분한 것을 제외하고 273명(회수율 86.7%)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일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CUIRB-2015-0032)의 승인을 거친 후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2월 22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였다. 1개의 대도시, 2개의 중소도시, 2개의 농어촌에 소재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방법을 설명 한 후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2개의 다문화가

족지원센터에서만 자료수집의 허락을 받았다. 대상자를 더 모집하기 위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눈덩이 굴리기식 표집방법을 통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연구보조원 3인에게 연구자가 설문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자료수집을 시행하였다.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가보고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연구의 과정에서 윤리적 고려가 이루어졌으며,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대상자에게만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익명성과 비밀 보장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중도 연구참여 철회 등을 설명하고, 연구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대상자가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할 경우 연구보조원이 설명해주었으며, 설문지를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4분 정도였고, 참여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 (3) 타당도 검정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구성타당도를 확인하였고, 다속성-다문항 매트릭스분석을 통해 문항의 수렴 및 판별타당도를, 양육 스트레스[11], 양육효능감[15], 결혼만족[16]과의 상관관계 검정을 통한 준거타당도를 확인하였다.

#### ① 탐색적 요인분석

이론적 개념과 측정 개념의 연결을 확인하고, 문항 추출을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다. 대표 요인의 수를 판단하고 여러 문항들 중 가능한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고[14], Varimax 직각회전을 사용하여 요인을 회전시켰다. 본 연구는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였다. 즉 Factor Analysis 10.4.0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최근 요인수 결정에 고려되고 있는 방법인 Parallel Analysis (PA)방법, Minimum Average Partial (MAP)방법을 사용하였다[17]. PA방법은 실제 자료에서 얻어진 고유값(eigenvalue)과 랜덤자료에서 얻어진 고유값을 순서대로 비교하여, 실제자료의 고유값이 랜덤자료의 고유값보다 클 때의 요인수로 결정하는 것이고, MAP 방법은 부분 상관관계 행렬을 사용하여 고유값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공통성이나 요인 적재량을 살펴보고 관련 문항의 개념적 타당성과 신뢰도의 기여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 ② 문항의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 검정

다속성-다문항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문항의 수렴 및 판별

타당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즉 문항의 수렴타당도는 각 문항과 그 문항이 속한 하위영역에서 그 문항을 뺀 나머지 문항들로 구성된 하위영역과의 상관계수가 .04 이상인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문항의 판별타당도는 각 문항과 그 문항이 속한 하위영역과의 상관계수와 다른 하위영역과의 상관계수의 차이가 상관계수 표준오차의 2배 이상 크지를 확인하였다.

### ③ 준거타당도 및 수렴타당도

준거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Abidin의 양육 스트레스[11]와의 상관관계를 Pearson 상관계수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hin [18]이 다시 축소, 빈안한 척도로 도구사용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하부요인으로는 자녀의 기질, 자녀와의 관계, 학습기대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녀와의 관계 9문항과 학습기대 3문항의 총 1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자녀의 기질’요인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 문헌고찰 결과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Abidin [11]의 연구에서 하부요인의 Cronbach’s  $\alpha$ 는 자녀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이 .80, 부모의 디스트레스가 .87이었고, Shin [18]의 연구에서 하부요인인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74,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76이었고, 본 연구에서 하부요인인 자녀와의 관계 하부요인 .76, 학습기대 .78이었다.

준거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양육 스트레스와 부적상관관계가 있다고 확인된 양육효능감[15], 결혼만족[16]을 선정하였고,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양육효능감은 Gibaud-Wallston과 Wandersman [19]이 개발한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를 Shin [18]이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부요인으로는 부모효능감, 부모불안감, 부모 역할과 흥미이고,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효능감 9문항을 측정하였다.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Gibaud-Wallston과 Wandersman [1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0, Shin [18]의 연구에서는 .7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6이었다. 또한 결혼만족도는 Roach, Frazier와 Bowden [20]에 의해 개발된 Marital Satisfaction Scale (MSS)을 Jang [21]이 결혼이민자가 이해하기 쉽게 10문항으로 축소,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Roach, Frazier와 Bowden [2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4, Jang [21]의 연구에서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1이었다.

### (4) 신뢰도 검정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정을 위하여 내적 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산출하였다.

## 연구 결과

### 1. 개념분석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 개념의 범주와 속성을 확인한 결과 최종 6개의 범주와 23개의 속성이 도출되었다 (Table 1). 이론분석 단계와 현장분석 단계를 토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의 개념을 정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일상적인 어려움, 어머니 역할 부담, 양육지원체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문화 차이로 인한 양육방식 혼동, 서툰 한국어 의사소통으로 인한 어려움, 자녀의 부적응에 대한 어려움과 긴장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의 범주별 개념 정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상적인 어려움은 여성결혼이민자가 겪는 양육과 가사일로 인한 버거움(속성)과 양육으로 인한 신체적인 고통(속성)과 구속감(속성)이다. 어머니 역할 부담은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 적응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이중 부담(속성)과 양육에 대한 긴장감(속성), 자녀 교육의 어려움(속성), 앞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답답함(속성), 부족한 어머니 역할에 대한 좌절감(속성)과 자녀에게 미안함(속성)과 죄책감(속성)이다. 양육지원체계 부족은 여성결혼이민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양육지식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속성), 양육과 교육정보 지원 부족(속성), 경제적 부담(속성), 남편의 양육 도움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속성), 양육에 대한 자신감 저하(속성)이다. 문화 차이로 인한 양육방식 혼동은 여성결혼이민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모국과 다른 양육방식의 혼동(속성), 양육에 대한 가족 간의 갈등(속성), 한국의 낯선 교육제도에 대한 어려움(속성)이다. 서툰 한국어 의사소통은 여성결혼이민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자녀와의 의사소통 어려움(속성), 자녀와 관련된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속성)이다. 자녀의 부적응은 여성결혼이민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자녀의 언어발달 지연(속성), 학업부진(속성), 사회적 차별과 무시(속성), 정체성 혼란에 대한 걱정(속성)이다.

**Table 1.** Attributes and Sub-categories of Concept Analysis about Parenting Stress among Marriage Immigrant Women

Sub-categories	Attributes
Ordinary difficulties	Parenting and housework burden Physical pain and fatigue due to parenting Restrictions due to parenting
Role burden of mothers	Double burden of adaptation to Korea and parenting Tension for parenting Difficulties in child education Confusion about their future child education Sorriness about their child Sense of guilt for lack of mother roles Frustration due to mother roles
Insufficiency of the parenting support system	Lack of parenting information Financial burden Lack of support for parenting and educational information Lack of their husband's support Lack of confidence about parenting
Confusion of parenting methods due to cultural differences	Confusion due to different parenting style between Korea and their original country Conflicts in their family for parenting Unfamiliar education system in Korea
Unskilled Korean communication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with their child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associated with those related to their child
Maladjustment of children	Delay in their child's linguistic development Their child's poor academic development Discrimination and ignorance their child is going through Child's identity confusion

## 2. 예비문항개발

### 1) 예비문항 작성 및 내용타당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초기 예비문항으로 6개의 하위범주에 따라 61개를 작성하였다. 1차 내용타당도 결과, 문항의 의미가 중복되거나 I-CVI가 0.8 이하인 21개 문항은 삭제하였고, 문장이 긴 문항은 단순화하여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였으며, 함축된 의미의 문항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여 수정하였다. 언어 표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녀'를 '아이'로 수정 하였다. 또한 S-CVI/Ave는 .89였다. 2차 내용타당도는 40개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평가하였다. I-CVI가 0.8 미만인 문항은 없었으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항을 수정 및 삭제하였다. 언어 표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집 식구'를 '한국가족'으로 남편을 포함한 가족을 의미 하도록 수정하였다. S-CVI/Ave는 .95였다.

### 2) 문항의 번역

국문으로 된 35개 예비문항은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각각 베트남어와 영어로 번역-역번역

과정을 거쳤다. 베트남어 번역은 G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베트남어 번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어에 능통한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글로 된 예비문항을 베트남어로 번역 하였다. 역번역 과정은 한국에 거주한지 11년 되었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신문사에서 베트남어 번역을 담당하고 있고, 한국어에 능통한 베트남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가 베트남어로 된 문항을 한글로 번역하였다. 영어 번역은 전문 번역사를 통하여 한글로 된 예비문항을 영어로 번역하였고, 역번역 과정은 한국에 거주한지 12년 되었으며 한국어에 능통한 필리핀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이후 한글로 된 예비문항과 번역-역번역 과정을 거친 문항의 일치도를 확인하였고, 문항마다 90% 이상의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 3) 사용자타당도 검증

도구를 사용할 여성결혼이민자 30명에게 사용자타당도를 조사한 결과, '이해하기 어렵다'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로 응답한 경우는 없었고, 전체 설문지의 응답 소요시간은 평균 14분이었다. 조사 결과 수정이 필요한 문항은 없었다.

조사 대상자의 출신국은 베트남 19명, 필리핀 11명이었고

연령은 평균 28.1세였다. 한국 체류기간은 평균 4.1년이었으며, 학력은 고졸이 14명(46.7%)으로 가장 많았고 중졸이 7명(23.3%), 대졸이 6명(20.0%), 초졸이 3명(10%) 순이었다. 또한 주관적인 한국어 수준은 말하기 2.7점, 듣기 2.8점, 읽기 3점, 쓰기 2.8점의 4영역에서 5점 만점에 평균 2.7점이었다.

#### 4) 예비문항 선정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의 예비문항은 총 35문항이었고, 하위범주별 문항 수는 '일상적인 어려움' 3문항, '어머니 역할 부담' 7문항, '양육지원체계 부족' 9문항, '문화 차이로 인한 양육방식 혼동' 7문항, '서툰 한국어 의사소통' 3문항, '자녀의 부적응' 6문항이었다.

### 3.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출신국은 베트남이 168명(61.5%), 필리핀이 105명(38.5%)이었다. 대상자의 나이는 25세 이하가 69명(25.3%), 26세 이상 29세 이하가 132명(48.4%), 30세 이상이 72명(26.4%)이었으며, 전체 평균 나이는  $26.9 \pm 3.90$ 세였다.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86명(31.5%), 고등학교 졸업이 72명(26.4%), 대학교 졸업 이상이 75명(27.5%)이었다. 직업이 없는 대상자는 185명(67.8%)이었고, 주관적 소득수준은 못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51명(18.8%),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211명(77.6%), 잘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4명(1.5%)이었다. 거주 지역은 대도시가 98명(35.9%), 중소도시가 72명(26.4%), 농어촌이 103명(37.7%)이었다. 한국 평균 체류기간은  $6.62 \pm 1.98$ 년이었고, 자녀수는 1명이 121명(44.3%), 2명이 123명(45.1%), 3명 이상이 28명(10.3%)이었다.

#### 2) 타당도 검증

##### (1) 탐색적 요인분석

먼저 문항과 총점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가 .20 이하인 5번과 16번 문항을 삭제하여 총 33개 문항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33개 문항이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KMO 값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하였다. 본 연구의 KMO (Kaiser-Mayer-Olkin) 값이 .90, Bartlett 구형성 검정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서( $\chi^2=4036.78, p < .001$ ) 분석에 사용된 문항이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을 확인하였다. 1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은 8개였고, PA절차에 따라 주성분분석을 사용한 결과 요인

수는 3개였고, MAP절차에 따라 주성분분석을 사용한 결과는 2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항의 중요성, 요인의 고유값, 총설명력 등을 고려하면서 6차에 걸쳐 공통성이 .40 미만으로 낮고, 의미가 유사한 문항이 있어서 중복되거나, 한 개의 요인에 한 문항으로 묶인 문항(7개)을 삭제하였다. 6개 구성요인으로 최종 28개 문항이 도출되었고, 공통성 .40 이상, 요인적재값 .51 이상인 문항이었으며, 총 설명력은 61.37%였다(Table 2).

추출된 요인은 개념분석에서 도출된 범주와 일치하였다. 즉, 1요인은 '양육지원체계 부족' 요인(7문항), 2요인은 '어머니 역할 부담' 요인(5문항), 3요인은 '자녀의 부적응' 요인(5문항), 4요인은 '문화 차이로 인한 양육방식의 혼동' 요인(5문항), 5요인은 '서툰 한국어 의사소통' 요인(3문항), 6요인은 '일상적인 어려움' 요인(3문항)이었다(Table 2).

##### (2) 문항의 수렴 및 판별타당도

각 문항과 각 문항이 속한 구성요인과의 상관계수가 .40에서 .69사이의 값으로 문항의 수렴타당도가 만족되었다. 또한 문항의 판별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각 문항이 자신이 포함된 하위요인과의 상관계수가 자신이 포함되지 않는 하위요인과의 상관계수보다 작은 경우가 14개로 문항의 판별타당도가 90% 만족하였다(Table 3).

##### (3) 준거타당도 및 수렴타당도

본 연구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 총점과 Shin [18]의 양육 스트레스의 각 하부요인과는 .55 ( $p < .001$ )에서 .62 ( $p < .001$ )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도구의 각 구성요인과 Shin [18]의 양육 스트레스 하부요인과는 .32 ( $p < .001$ )에서 .60 ( $p < .001$ )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본 연구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 총점은 양육효능감과 부적 상관관계( $r = -.46, p < .001$ )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양육 스트레스 1요인( $r = -.39, p < .001$ ), 2요인( $r = -.35, p < .001$ ), 3요인( $r = -.31, p < .001$ ), 4요인( $r = -.39, p < .001$ ), 5요인( $r = -.19, p < .001$ ), 6요인( $r = -.35, p < .001$ )과 양육효능감은 모두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본 연구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 총점은 결혼만족도와 부적 상관관계( $r = -.38, p < .001$ )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 1요인( $r = -.37, p < .001$ ), 2요인( $r = -.27, p < .001$ ), 3요인( $r = -.16, p = .011$ ), 4요인( $r = -.34, p < .001$ ), 6요인( $r = -.39, p < .001$ )과 결혼만족도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Table 2.** Extracted Factor Loading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N=273)

Factors	Item number	Factor loading					
		F1	F2	F3	F4	F5	F6
Insufficiency of parenting support system	14	<b>0.72</b>	0.21	0.20	0.16	0.10	0.09
	11	<b>0.68</b>	0.22	0.08	0.11	0.30	0.17
	15	<b>0.67</b>	0.11	0.04	0.19	0.02	0.25
	13	<b>0.59</b>	0.08	0.27	0.13	0.09	0.45
	19	<b>0.54</b>	0.31	0.04	0.19	0.29	0.18
	18	<b>0.54</b>	0.22	0.24	0.50	-0.12	-0.14
	17	<b>0.51</b>	-0.13	0.29	0.33	0.00	0.15
Role burden of mothers	8	0.12	<b>0.80</b>	0.18	0.01	0.10	0.05
	7	0.09	<b>0.68</b>	0.15	0.12	0.21	0.25
	4	0.07	<b>0.67</b>	0.08	0.21	0.12	0.22
	6	0.09	<b>0.65</b>	0.20	0.08	0.29	0.22
	9	0.27	<b>0.63</b>	0.02	0.07	-0.02	0.15
Maladjustment of children	34	0.16	0.07	<b>0.79</b>	0.25	0.09	0.03
	33	0.20	0.18	<b>0.76</b>	0.04	0.19	0.15
	35	0.00	0.14	<b>0.73</b>	0.30	0.08	0.04
	32	0.23	0.20	<b>0.60</b>	0.10	0.33	-0.07
	31	0.16	0.12	<b>0.54</b>	-0.01	0.43	0.14
Confusion of parenting methods due to cultural differences	22	-0.02	0.02	0.07	<b>0.69</b>	0.12	0.32
	23	0.29	0.21	0.04	<b>0.68</b>	0.10	0.02
	21	0.09	0.08	0.13	<b>0.62</b>	0.08	0.23
	24	0.32	0.16	0.24	<b>0.62</b>	0.13	-0.12
	25	0.31	0.04	0.22	<b>0.60</b>	0.19	0.05
Unskilled Korean communication	27	0.15	0.24	0.19	0.11	<b>0.75</b>	-0.02
	28	0.17	0.18	0.11	0.18	<b>0.74</b>	-0.09
	29	-0.01	0.02	0.35	0.16	<b>0.69</b>	0.20
Ordinary difficulties	1	0.16	0.32	0.04	0.13	-0.02	<b>0.70</b>
	3	0.27	0.26	0.08	0.13	0.12	<b>0.69</b>
	2	0.27	0.40	0.06	0.13	-0.04	<b>0.65</b>
Eigenvalue		9.12	2.41	2.10	1.26	1.22	1.08
Variance (%)		32.57	8.61	7.49	4.51	4.34	3.86
Cumulative variance (%)		32.57	41.18	48.66	53.17	57.51	61.37

3) 신뢰도 검정

본 개발도구의 전체문항의 Cronbach's  $\alpha$ 는 .92 (95% CI .91~.94)였으며, '양육지원체계 부족' 요인은 .85 (95% CI .82~.87), '어머니 역할 부담' 요인은 .82 (95% CI .78~.85), '자녀의 부적응' 요인은 .83 (95% CI .79~.86), '문화 차이로 인한 양육방식 혼동' 요인은 .77 (95% CI .72~.81), '서툰 한국어 의사소통' 요인은 .76 (95% CI .71~.80), '일상적인 어려움' 요인은 .79 (95% CI .75~.83)였다(Table 5).

4. 최종 개발된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 측정 도구

최종적으로 개발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 측정

도구는 총 6요인, 28문항으로 '양육지원체계 부족' 7문항, '어머니 역할 부담' 5문항, '자녀의 부적응' 5문항, '문화 차이로 인한 양육방식의 혼동' 5문항, '서툰 한국어 의사소통' 3문항, '일상적인 어려움' 3문항이다(Appendix 1). 본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28점에서 140점의 점수범위를 갖고, 총점의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문항의 평균은  $87.58 \pm 18.89$ 점, 하부요인의 평균은 '양육지원체계 부족'  $16.59 \pm 4.47$ 점, '어머니 역할 부담'  $14.93 \pm 4.23$ 점, '자녀의 부적응'  $16.59 \pm 4.47$ 점, '문화 차이로 인한 양육방식의 혼동'  $14.93 \pm 4.23$ 점, '서툰 한국어 의사소통'  $9.99 \pm 2.84$ 점, '일상적인 어려움'  $9.28 \pm 2.90$ 점이었고, 전



**Table 3.** Convergent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N=273)

Item number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Factor6	2*Standard error of correlation coefficient
11	.65	.42	.38	.43	.37	.41	0.09
13	.63	.37	.43	.42	.27	.54	0.09
14	.67	.40	.41	.44	.33	.41	0.09
15	.60	.32	.27	.41	.21	.42	0.10
17	.51	.15	.37	.44	.20	.26	0.10
18	.56	.33	.38	.57	.21	.27	0.10
19	.58	.47	.36	.44	.36	.41	0.10
4	.37	.58	.30	.34	.30	.48	0.10
6	.38	.63	.40	.29	.42	.46	0.09
7	.39	.67	.35	.32	.35	.49	0.09
8	.33	.67	.35	.24	.30	.38	0.09
9	.39	.50	.23	.26	.19	.43	0.11
31	.36	.35	.53	.29	.49	.22	0.10
32	.42	.35	.60	.36	.49	.19	0.10
33	.44	.38	.69	.33	.44	.30	0.09
34	.43	.28	.69	.43	.40	.20	0.09
35	.33	.28	.61	.41	.36	.18	0.10
21	.40	.27	.31	.49	.24	.29	0.11
22	.34	.23	.26	.48	.23	.29	0.11
23	.51	.32	.31	.58	.29	.32	0.10
24	.51	.29	.42	.58	.33	.22	0.10
25	.50	.25	.42	.57	.36	.27	0.10
27	.50	.25	.42	.73	.40	.27	0.11
28	.36	.19	.31	.39	.51	.23	0.10
29	.35	.40	.48	.30	.40	.19	0.11
1	.40	.47	.18	.28	.16	.63	0.09
2	.47	.53	.25	.34	.16	.67	0.09
3	.50	.47	.28	.35	.24	.61	0.10

체문항의 평균평점은 3.13±0.67점이었다(Table 5).

## 논 의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특성 및 구성요인,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 개념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상자 면담을 실시한 결과, 특히 양육지원체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과 자녀의 부적응에 대한 걱정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주된 스트레스임을 확인하였고, 실제성이 드러나도록 대상자가 사용한 어휘와 면담내용을 토대로 문항을 작성하였다. 지금까지의 국내의 양육 스트레스 관련 측정도구는 주로 외국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18,21], 구성요인으로 자

**Table 4.** Criterion-related Validity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N=273)

Parenting stres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PSI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Marriage satisfaction
	Relationships with children	Expectations for learning	Total score		
	r (p)	r (p)	r (p)	r (p)	r (p)
F1	.50 ( $<.001$ )	.60 ( $<.001$ )	.59 ( $<.001$ )	-.39 ( $<.001$ )	-.37 ( $<.001$ )
F2	.41 ( $<.001$ )	.39 ( $<.001$ )	.44 ( $<.001$ )	-.35 ( $<.001$ )	-.27 ( $<.001$ )
F3	.32 ( $<.001$ )	.43 ( $<.001$ )	.40 ( $<.001$ )	-.31 ( $<.001$ )	-.16 (.011)
F4	.46 ( $<.001$ )	.49 ( $<.001$ )	.52 ( $<.001$ )	-.39 ( $<.001$ )	-.34 ( $<.001$ )
F5	.40 ( $<.001$ )	.37 ( $<.001$ )	.40 ( $<.001$ )	-.19 ( $<.001$ )	-.11 (.086)
F6	.34 ( $<.001$ )	.36 ( $<.001$ )	.38 ( $<.001$ )	-.35 ( $<.001$ )	-.39 ( $<.001$ )
Total items	.55 ( $<.001$ )	.62 ( $<.001$ )	.63 ( $<.001$ )	-.46 ( $<.001$ )	-.38 ( $<.001$ )

F1=Insufficiency of parenting support system; F2=Role burden of mothers; F3=Maladjustment of children; F4=Confusion of parenting methods due to cultural differences; F5=Unskilled Korean communication; F6=Ordinary difficulties.

녀의 까다로운 기질,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자녀에 대한 학습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양육 스트레스의 주요 요인으로 파악하여 왔다[11]. 본 연구도구는 기존의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에서 측정하지 못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의 주요한 속성인 문화 차이로 인한 양육방식 혼동, 서툰 한국어 의사소통으로 인한 어려움, 양육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같은 양육지원체계 부족, 아이에게 한국어 어머니처럼 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같은 어머니역할 부담, 자녀의 언어나 학습 발달 지연과 사회적 차별이나 정체성 혼란과 같은 자녀의 부적응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와는 차별되고 지금까지 측정하지 못했던 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된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문항을 제작할 경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항을 간결하게 작성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한글에 서툰 경우, 문항을 이해하지 못하여 문항의 내용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베트남어와 영어버전의 도구를 고안하였다. 측정도구의 문항을 번역할 때 원도구와 번역도구가 동일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번역-역번역 과정을 거쳐서 정확하게 번역이 이루어지도록 노

력하였고, 사용자타당도 평가를 통하여 내용타당도를 높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한글로 작성된 도구와 베트남어와 영어로 번역된 도구 간에 어의가 일치하도록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의의 불일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번역과정은 본 연구대상자와 같이 외국어를 주언어로 사용하는 대상자를 위한 측정도구 개발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문항개발 후 처음 타당도 평가하는 연구에서 현실적으로 두 언어에 능통한 유아기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번역된 도구 간에 측정불변성을 평가하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번역된 도구 간에 측정불변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시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도구의 타당도 평가를 일회회 그치지 않고 꾸준히 함으로써 도구의 타당화(validation)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도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를 총 61.4% 설명하였다. 한편 Abidin [11]의 PSI는 부모 영역의 7개 요인의 설명력이 44%, 아동 영역의 6개 요인의 설명력이 41%로 부모 영역의 설명력과 비교하면,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설명력이 더 높았다. 그러나 PDH의 3개 요인의 설명력이 84%[22]로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설명력이 더 낮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측정도구가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과 같은 아동 영역과 관련된 양육 스트레스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대신 본

**Table 5.** Item-analysis and Reliability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N=273)

Factors	Item number	Item-total correlation	α if item deleted	Cronbach's α (95% CI)	Rating	M±SD
					M±SD	
Insufficiency of parenting support system	11	.61	.918	.85 (.82~.87)	3.21±1.15	16.59±4.47
	13	.62	.918		2.97±1.13	
	14	.61	.918		3.11±1.16	
	15	.62	.920		3.19±1.14	
	17	.52	.921		3.48±1.15	
	18	.46	.919		3.32±1.23	
	19	.55	.918		3.20±1.23	
Role burden of mothers	4	.52	.920	.82 (.78~.85)	2.79±1.20	14.93±4.23
	6	.56	.919		2.89±1.21	
	7	.56	.919		3.05±1.22	
	8	.49	.920		3.05±1.30	
	9	.45	.921		2.78±1.34	
Maladjustment of children	31	.50	.920	.83 (.79~.86)	3.17±1.27	16.59±4.47
	32	.54	.919		3.03±1.19	
	33	.57	.919		2.84±1.19	
	34	.54	.919		2.68±1.24	
	35	.48	.920		2.93±1.18	
Confusion of parenting methods due to cultural differences	21	.45	.921	.77 (.72~.81)	3.05±1.16	14.93±4.23
	22	.41	.921		3.18±1.18	
	23	.53	.919		3.09±1.10	
	24	.55	.919		3.38±1.15	
	25	.55	.919		3.32±1.13	
Unskilled Korean communication	27	.50	.920	.76 (.71~.80)	3.29±1.17	9.99±2.84
	28	.46	.920		3.26±1.16	
	29	.46	.920		3.44±1.13	
Ordinary difficulties	1	.46	.920	.79 (.75~.83)	3.44±1.14	9.28±2.90
	2	.53	.919		3.26±1.22	
	3	.54	.919		3.19±1.16	
Total items				.92 (.91~.94)	3.13±0.67	87.58±18.89

측정도구에서는 아동의 기질보다는 아동의 언어발달, 학습지연, 사회적 차별 등에 대한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자녀의 부적응’ 요인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 본 연구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도구의 1요인은 ‘양육지원체계 부족’ 요인으로 양육정보부족, 양육의 주변 도움 부족, 비협조적인 남편의 양육태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명 변량이 가장 높았다. Abdin [11]은 부모영역의 양육 스트레스로 ‘사회적 고립’을 제시하였고, 이는 부모 역할을 위한 사회적 지지의 이용 불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아이 양육 시 주변의 도움 같은 사회적 지지는 중요하며, 이러한 지지체계가 부족할 경우 양육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고립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구체적인 문항에서 기존의 도구와 다른 내용이 있다. 즉 양육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한국 엄마들과의 사귀기 어려움과 정보의 부족, 아이를 대신 돌봐줄 사람의 부재를 측정하고 있다. 또한 핵가족 사회에서 아버지의 지지는 자녀의 바람직한 발달과 어머니의 적응을 돕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였으며[5], 본 연구의 측정도구에서는 남편의 지지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남편 지지 관련 문항은 기존의 도구[11,22]에서 측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으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는 양육에 대한 정보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방향을 상실하게 된다[5]. 그러므로 양육을 어머니의 책임으로 여기는 분위기에서 여성결혼이민자는 도움을 받을 곳 없이 홀로 양육을 감당해야 하

로 양육지원체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양적으로도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요인의 양적 정도의 차이는 다른 요인보다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기존의 양육 스트레스 도구에는 양육지원체계 부족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 반면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보다 적합한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2요인은 ‘어머니 역할 부담’ 요인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 자녀 교육의 어려움과 답답함, 한국 엄마처럼 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으로 이주하여 두려움, 불안,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며, 자녀양육은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시킨다[23]. 여성결혼이민자는 자녀에게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자괴감과 답답함을 느끼고, 자녀에게 한국 어머니처럼 학습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큰 부담이 되며, 부모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했을 때 자녀에게 미안함과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감과 같은 감정반응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한 연구[23]와 본 연구의 어머니 역할 부담은 같은 맥락이라고 사료된다. 취업모 양육 스트레스 척도에서도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가 공통된 요인으로 나타났던 것처럼[24] 양육 스트레스에서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3요인은 ‘자녀의 부적응’ 요인으로 자녀의 언어 및 학습발달 지연에 대한 걱정, 자녀의 사회적 차별과 정체성 혼란에 대한 어머니의 걱정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Abidin [11]의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많은 문항에서 자녀와 관련된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 양육 스트레스에서 자녀와 관련된 특성은 중요한 요인이므로 본 측정도구에서도 자녀의 부적응과 관련된 문항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자녀의 부적응 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불안해한다고 보고되고 있다[25]. 이는 본 연구의 면담과정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자녀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지 않고 한국인으로 살도록 노력한다고 하였다[25]. 따라서 이 요인은 자녀가 한국인으로 성장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기대가 담겨 있으며, 자녀가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될 때 어머니가 겪는 스트레스를 평가한다. 이 요인은 기존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본 연구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가 다른 도구와 다른 차별화된 속성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4요인은 ‘문화차이로 인한 양육방식의 혼동’ 요인으로 한국과 모국의 양육방식 차이에서 발생하는 가족 간의 갈등, 한국의 교육열과 낮은 교육제도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육의 어려움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여성결혼이민자는 남편이나 시집 식구가 모국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며, 일방적으로 한국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에 대하여 섭섭함과 저항감을 느낀다[26].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의 교육열이 높고 아동을 위한 학습과 사교육이 심하다고 생각하며,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다[25]. 이는 여성결혼이민자는 모국과 다른 한국의 자녀교육 현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하고, 한국 어머니처럼 자녀에게 교육여건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요인은 문화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 차이로 발생하는 스트레스이며, 이민자가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5요인은 ‘서툰 한국어 의사소통’ 요인으로 한국어가 서툴러서 아이와 대화하거나 다른 사람과 양육에 대해 대화하는 것에 관한 어려움이다.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는 특히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27]. 여성결혼이민자는 서툰 한국어 실력 때문에 자녀의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자녀의 학교적응을 제대로 돕지 못하고, 자녀가 교육기관에 적응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자녀의 차별과 무시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28].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서툰 한국어 실력은 어머니 역할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 관리에서 한국어교육이 중요한 중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6요인은 ‘일상적인 어려움’ 요인으로 양육과 집안일의 어려움, 신체적 피로, 여가시간 부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Abidin은 부모영역의 양육 스트레스로 ‘역할 제한’을 제시하였는데[11], 이는 부모 개인의 자유 시간 부족과 다른 역할 수행에 따른 제약으로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부모는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시·공간적 제약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방식으로 서툰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있으며[28], 이로 인하여 피곤함과 여가시간의 부족을 느끼고, 자아성취에 방해받기도 한다[24]. PSI [11]와 취업모 양육 스트레스 척도[29],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척도[24]에서 ‘일상적 스트레스’는 공통적으로 나타난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 이 요인은 가장 낮은 설명변량을 나타냈는데, 이는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식의 낮은 양육과

집안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움과 신체적 피로, 여가 시간 부족을 느끼지만 자녀양육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로서 감내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신의 안일보다는 자식을 위한 어머니로서의 역할 수행, 즉 양육지원체계 부족으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이나 어머니역할 부담, 자녀의 부적응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내용타당도 검정을 위한 전문가 집단은 다문화 연구와 실무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도 전문가 집단에 포함하여 본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요인수 결정에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에 따라[17] 다양한 기준들을 고려하면서 구성타당도를 확보하려고 하였고, 준거타당도와 문항의 수렴 및 판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도구는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 준거타당도, 문항의 수렴 및 판별타당도가 검증되어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를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볼 수 있다.

본 도구의 Cronbach's  $\alpha$  는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성요인의 신뢰도가 .76 이상이고 95% 신뢰구간도 .70 이상이므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다[3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자료수집의 어려움 때문에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검증하지 못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도구의 안정성 신뢰도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표집으로 자료수집하여 동일한 요인구조 도출을 확인하고,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도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는 유아기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를 표적 집단으로 하다 보니 최근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가 많아서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다른 국적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모두 포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다른 모국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도구의 측정불변성(measurement invariance)을 평가함으로써 도구사용의 확대를 기대해본다.

## 결론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도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 준거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도구이므로 이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보다 적합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영향요인과 관련 요인을 확인하는 추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간호 실무에서 높은 양육 스트레스가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중재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며,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 증재를 위한 정책마련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측정도구는 간호 학생과 간호사에게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 속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문헌고찰과 면담을 통하여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나, 본 측정도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의 다른 속성을 밝혀내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 평가를 제안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추후 다양한 국가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본 도구의 요인구조가 집단 간에 동일하게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불변성과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정을 제안한다.

## ORCID

Kim, Jung

<https://orcid.org/0000-0001-7887-6879>

Kim, Sun-Hee

<https://orcid.org/0000-0001-8518-5670>

## REFERENCES

1. Sung DK, Lee JY.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2010;22(3):749-772.
2. Korea Immigration Service. Monthly statistics report: Status of Korean spouses' nationality by region (as of the end of March 2016) [Internet]. Gyeonggi-do: Author; 2016 [cited 2017 September 5]. Available from: [http://www.immigration.go.kr/doc\\_html/attach/imm/f2016//20160428254375\\_1\\_31.xls.files/WorkBook.html](http://www.immigration.go.kr/doc_html/attach/imm/f2016//20160428254375_1_31.xls.files/WorkBook.html)
3. Lee SM, Lee KA.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and efficacy in mothers of multicultural family on their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0;17(3):71-105.
4. Park MS.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on parenting stress among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014;46:1-23.
5. Choi NY, Woo HK, Jung HS, Park HJ, Yi SH. Mothers' parenting stress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09;27(2):255-268.

6. Song MK, Jee SH, Cho EK, Lim YS. A study on the parental experience of a foreign mother in a multicultural famil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8;20(2): 497-517.
7. Baker BL, McIntyre LL, Blacher J, Crnic K, Edelbrock, C, Low C. Pre-school children with and without developmental delay: Behaviour problems and parenting stress over time.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2003;47(4-5):217-230. <https://doi.org/10.1046/j.1365-2788.2003.00484.x>
8. Potts NL, Mandelco BL. *Pediatric nursing: Caring for children and their families*. 3rd ed. Delmar Cengage Learning; 2011. 1246 p.
9. Chung KS.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s Korean migration and their adjustment of life in Korea.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08;20:68-103.
10. Kim GO. A study on the need for parental education of the mothers of married immigrant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4;16(1):175-205. <https://doi.org/10.15409/riece.2014.16.1.175>
11. Abidin RR. *Parenting stress index (PSI)*. 3rd ed. Charlottesville: Pediatric Psychology Press; 1990. 100 p.
12. Schwartz-Barcott D, Kim HS. An expansion and elaboration of the hybrid model of concept development. *Concept development in nursing: Foundations, techniques, and applications*; 2000. 107-133 p.
13. DeVellis RF. *Scale development*.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11. 205 p.
14. Tak JK. *Psychological testing. An understanding of development and evaluation method*. Seoul: Hakjisa; 2013. 415 p.
15. Kim MJ, Ha JM. The effects of object relation and parenting efficacy on parenting stress: Mothers with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3;18(1):283-303.
16. Yoon JW, Hwang RI, Cho HH. Parenting stress and related factors of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09;15(4):294-302. <https://doi.org/10.4069/kjwhn.2009.15.4.294>
17. Henson RK, Roberts JK. Use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published research: Common errors and some comment on improved practic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2006;66(3):393-416. <https://doi.org/10.1177/0013164405282485>
18. Shin SJ, Chung MJ. Effects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efficacy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998;19(1):27-42.
19. Gibaud-Wallston J, Wandersmann LP.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Toronto: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78.
20. Roach AJ, Frazier LP, Bowden SR.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81;43(3):537-546.
21. Jang JY. Influence that marital satisfaction and fostering stress of marriage immigrating women has on the cultural adaptation [master's thesis]. Seoul: Chung-Ang University; 2009. 104 p.
22. Crnic KA, Greenberg MT.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1990;61(5):1628-1637.
23. Cho HH, Park ES, Oh WO. Maternal conflicts of Vietnamese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4;44(6):617-629. <https://doi.org/10.4040/jkan.2014.44.6.617>
24. Kang HK. Parenting stress scale for parents of school-aged childr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03;21(2):31-38.
25. Yang SN, Kim WY, Kim YO. A study on multi-cultural family mothers' experience of child rearing.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3;18(1): 71-94.
26. Yang JH, Park HJ, Kim SS, Kang EJ, Byun SH, Bang JS. Adaptation experience to family of immigrant women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2; 42(1):36-47. <https://doi.org/10.4040/jkan.2012.42.1.36>
27. Kim HH, Park CM, Lee JR, Shin HS.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maltreatment on mother's perception of parenting daily hass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2009;13(2):207-219.
28. Kim SS. The difficulties Immigrants-through-marriage mothers face in adjusting to their children's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2;32(2):241-264.
29. Kim KH, Kang HK. Research: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1997;35(5):141-150.
30. Iacobucci D, Duhachek A. Advancing ?: Measuring reliability with confidence.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2003;13(4): 478-487. [https://doi.org/10.1207/S15327663JCP1304\\_14](https://doi.org/10.1207/S15327663JCP1304_14)

### 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lack a parenting support system. They are burdened with mother 's role due to cultural differences and poor Korean communication ability. They also worry about maladjustment of their children. These characteristics are different from the parenting stress of Korean women.

■ **What this paper adds?**

Insufficiency of parenting support system, maladjustment of children, confusion of parenting methods due to cultural differences, and unskilled Korean communication were found in the concept of parenting stres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included in the assessment tool for them.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This instrument can be used to evaluate the parenting stress of married immigrant women, especially to identify women who need nursing support and intervention.

## Appendix 1.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스트레스 측정도구

문 항	
1	양육과 집안일을 혼자 도맡아 해서 힘들다.
2	양육으로 몸이 피곤하다.
3	양육으로 인해 여가시간이 부족하다.
4	한국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양육을 하기 어렵다.
5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것이 어렵다.
6	앞으로 아이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몰라 답답하다.
7	한국 엄마처럼 해줄 수 없어 아이에게 미안하다.
8	아이에게 생기는 문제가 나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든다.
9	양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10	아이를 맡기거나 대신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
11	양육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한국 엄마들을 사귀기 어렵다.
12	남편이 아이를 돌보는 것을 도와주지 않아서 힘들다.
13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든다.
14	아이에게 더 많은 교육비를 지원 해주지 못해 속상하다.
15	아이를 키우는 데 자신감이 부족하다
16	한국의 양육방식을 몰라서 한국 가족에게 무시당한다.
17	한국 가족들이 한국의 양육방식을 강조한다.
18	한국의 교육열을 따라가기 부담스럽다.
19	한국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등 교육제도가 익숙하지 않다.
20	양육방식이 모국과 달라서 어렵다.
21	내가 한국어가 서툴러서 아이와 대화하는 것이 힘들다.
22	내가 한국어가 서툴러서 다른 사람들과 아이 양육에 대해 대화하기 어렵다
23	아이가 아플 때 의사에게 설명하기 어렵다.
24	나의 서툰 한국어 발음 때문에 아이의 언어발달이 느려진다고 생각한다.
25	내가 도와주지 못하여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할까봐 걱정이다.
26	아이가 차별을 받을까봐 걱정스럽다.
27	나로 인해 아이가 놀림을 받을까봐 걱정스럽다
28	엄마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서 아이가 혼란스러워 할 것 같다